

A New Stage for Communication and Empathy: Jean Geoffroy plays Attacca!

Kim, Kyoung-hwa

The Concert entitled "Jean Geoffroy plays Attacca!" was held on November 13, 2013 at Baekam Art Hall hosted by CREAMA (Center for Research in Electro-Acoustic Music and Audio). It featured live electronic sound provided by CREAMA and world-renowned percussionist Jean Geoffroy. For the concert, four prominent composer's works were performed. In particular, this concert allowed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most modern electronic sound spectrum and to see the virtuosic performance of the percussionist. Moreover, it was successful in communicating with not only electroacoustic music specialists but also audience members who were unfamiliar with contemporary music by offering visual spectacles as well as acoustic variety.

소통과 공감을 위한 새로운 장: Jean Geoffroy plays Attacca!

김경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화두가 된 21세기 현재, 문화를 구성하는 각 분야에서는 저마다의 매체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한국의 현대음악계에서도 포착된다. 일반적으로 현대음악은 그 자체가 담고 있는 낯설고 난해한 어법과 표현법으로 인해 일반 청중들로부터의 괴리감을 좁히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현대음악계는 청중에게 한 발짝 다가서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11월 13일 저녁 8시 백암아트홀에서 열린 "Jean Geoffroy plays Attacca!"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돋보이는 연주회였다.

이 연주회는 대한민국 현대 전자음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자음악연구소 <크리마>(CREAMA, Center for Research in Electro-Acoustic Music and Audio)가 기획하고, 세계 정상급의 타악기 연주자 장 조프루아(Jean Geoffroy)가 함께 연주하는 공연이었다. <크리마>는 현대적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 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운드 영역을 개척하는 일에 앞장서 온 단체이다. 장 조프루아 역시 최근 타악기와 전자 음향을 결합한 라이브 일렉트로닉 분야로 레퍼토리를 확장하여 독자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선보일 무대는 국내의 현대전자음악 창작과 공연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공연은 조프루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섬세하고 폭발적인 타악기 리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음향이 무대에서 실시간 변형되는 라이브 일렉트로닉 방식으로 펼쳐졌다. 무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꾸며졌으며, 각 무대에는 현대 전자음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네 명의 작곡가의 작품이 올려졌다. 1부에서는 브뤼노 망토바니(Bruno Mantovani)의 《타악기와 일렉트로닉을 위한 거대한 게임 Le Grand Jeu pour percussion et électronique》(1999)와 야스오 스에요시(Yasuo Sueyoshi)의 《마림바를 위한 신기루 Mirage pour Marimba》(1971), 임종우의 《두 타악기와 실시간 일렉트로닉을 위한 움직이는 색채 Moving Color for 2 percussionist & electronics in real-time》(2013년 개작)이, 2부에서는 이 음악회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이보 말렉(Ivo Malec)의 《타악 독주와 부분 일렉트로어쿠스틱을 위한 아타카 협주곡(Attacca concerto pour percussion solo et partie electroacoustique)》(1986)가 연주되었다.

앞쪽 무대 위에는 마림바, 콩가, 드럼 세트, 차임, 심벌즈를 비롯해 56개 이상의 타악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 경관은 청중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며, 무대 위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연주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오른쪽 편에서 작은 핀 조명을 받으며 연주자 저프루아가 콩가 리듬을 섬세하게 터치하면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작품은 망토바니의 《거대한 게임(Le Grand Jeu)》였다. 이 작품은 때로는 부드럽고 신비로운 음향으로, 때로는 날카롭고 강렬한 리듬으로 공간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타악기 리듬의 변화와 전자 음향의 극적인 효과를 통해 감상자들에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두 번째 작품인 스에요시의 《신기루(Mirage)》는 마림바를 위한 곡으로, 이번 음악회의 또 다른 타악기 주자인 김은혜가 연주를 맡았다. 세계적인 마림바 연주자 케이코 아베(Keiko Abe)를 위해 작곡된 이 작품의 제목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본다”는 의미의 프랑스어 “Mirer”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연주자 아베가 직접 불인 것이다. 템포와 다이내믹의 극적 대비를 통해 마림바가 낼 수 있는 역동적인 리듬과 음색 변화를 창의적으로 실험한 곡이었다.

뒤이어 세 번째 작품인 임종우의 《움직이는 색채(Moving Color)》가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두 그룹의 타악기와 실시간 전자 음향을 위한 곡으로서 타악기와 전자음악의 두 매체간의 음색적 차이와 연결 가능성을 흥미롭게 모색한 작품이었다. 작곡가는 특히 두 타악기 그룹을 가죽악기와 가죽이 아닌 악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자적 테크닉을 활용하여 연주되는 악기의 고유 음색이 아닌, 전혀 다른 의외의 음색을 형성해 나갔다. 즉 가죽악기의 소리를 금속 재질의 소리로 변형하고, 음정이 없는 타악기에서 음정을 생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음색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감상자로 하여금 시각적 대상과 청각적 대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작곡가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외부 조건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반복되는 패턴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적 삶의 아이러니와 연결시켰다. 이 작품은 바라보는 대상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빛어지는 의외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고차원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잠깐의 휴식을 뒤로 하고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 작품인 이보 말렉의 《아타카(Attacca)》가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타악기와 전자적 방법으로 녹음된 소리를 소재로 하는 구체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이 곡은 1986년에 조프루아가 초연하였으며 이후 그에게 헌정된 곡이기도 하다. “Attacca”(쉬지 않고 계속하라는 의미의 연주 지시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20분 이상의 연주 시간 동안 휴지부 없이 지속된다. 비명 소리와 같은 날카로운 기계음으로부터 시작하여 56개의 타악기가 순차적으로 연주되고, 그것이 다양한 전자적 사운드와 뒤엉켜 강렬한 음향을 만들어 낸다. 또 침묵과 소리의 경계에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다이내믹과 쉼 없이 지속되는 연주로 인해 청중들로 하여금 청각적 긴박감과 함께 음악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였다. 이 작품은 음향의 흐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소리가 중단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지만, 오히려 청각적 자극을 극대화하여 휴지부를 기대하는 모순된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이 곡에서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음향을 통해, 그리고 다이내믹과 음색의 대비를 통해 구조적 통일성을 이끌어내는 탄탄한 구성력도 돋보였다.

이날 음악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먼저 가장 현대적인 전자적 사운드와 타악기 연주자의 비르투오스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영상 매체의 시각적 이미지가 결합하여 청중들에게 청각적, 시각적 다채로움을 선사하였다. 또한 기획에서부터 구성, 연출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집중력 있게 새로운 음향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연주자와 레퍼토리를 소개하여 청중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딱딱한 기계음으로만 여겨졌던 전자 음향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소리의 향연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존재 의미와 가능성을 보여준 공연이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들이 기획되고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요즈음의 음악적 환경에서 현대음악은 여전히 일반 청중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해하기 어렵고 듣기 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대음악은 가까이 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음악은 이 시대 예술가들의 노력의 결실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 소산이다. 어쩌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의 일부로서 현대음악은 현대적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낸,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음악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현대음악은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화 영역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음악은 일반 청중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현대음악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청중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현대음악계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자음악연구소 <크리마>와 조프루아의 《아타카》는 전문 음악가들뿐 아니라 현대음악을 낯설어 하는 일반 청중들까지도 포용하여 현대 전자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전자음악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이 음악회는 21세기 현대음악이 가야 할 다양한 방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었다. 앞으로 전자음악 연구소 <크리마>의 활약을 기대한다.